

간송이 사랑한 우리 그림

- 겸재 정선(鄭敼, 1676-1759)을 중심으로

이원복, (사)역사여성미래 공동대표, 동국대 객원교수

“서화는 매우 아름답고 골동은 자랑할 만하다. 일가에 모인 것이 천추의 정화로다. 우리나라에 남은 주교로 고구 검토할 수 있네. 세상과 함께 보배로 자손 길이 보존하세(書畫孔嘉 古董堪誇 萃於一家 千秋精華 檣域遺胎 獲能攷究 與世同寶 子孫永葆).”

오세창이 지은 보화각 지석(誌石)

아! 간송

- 우리 민족문화 유산의 수호신

‘우리 민족문화 유산의 수호신(守護神)’으로 지칭되는 간송(澗松) 전형필(全瑩弼, 1906-1962) 선생의 수집품이 우리나라 미술사 연구에 있어 점하는 비중은 실로 지대하다. 간송미술관(현 간송미술문화재단) 소장품만으로 한국미술사 서술이 가능하며, 특히 한국회화사는 이곳을 제외하고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들 그림 전체에 대한 연구와 조명이 제대로 이루어진 뒤에야 우리 회화사에 대한 체계적 서술과 올바른 인식이 가능하다. 미술사가 입장에서 이는 결코 지나치거나 과장이 아니다.

간송은 1938년 우리나라 최초 사립박물관인 보화각(葆華閣)을 동소문 밖 성북동 북단장 내 건립했다. 1966년 이곳에 설립된 한국민족미술연구소는 최완수 실장과 문도들에 의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조사와 연구가 진행된다. 이를 바탕으로 1971년 가을부터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각기 2주씩 기획전을 개최했다. 이들 국보급 문화재들을 공개한 기획전이 1백회를 넘겼다. 특히 실물을 통한 연구로 우리 회화사 흐름의 맥(脈)을 잡는 논고와 저술이 이어졌으니 미술사학계에 기여는 괄목된다. 인문학 전반에 걸쳐 세칭 간송학파(澗松學派)가 출현한다.

간송 수집 우리 그림

- 조선 5백년을 아우른 화가들의 대표작들

간송 소장품은 도자공예와, 특히 서화가 단연 압권이다. 우리 문화재 최고 수장처인 국립중앙박물관 서화는 양적으론 국내 선두이다. 국립박물관 서화의 주류는 이왕가박물관 것들로 1969년 덕수궁에서 인수받았다. 그러나 이 그림들은 일반인이 생각하듯 조선건국 초부터 궁실(宮室)에 비장(秘藏)된 것들은 아니다. 이왕가박물관 전신인 제실박물관(帝室博物館)이 1908년 대한제국 때 건립된 후 구입 내지 기증받은 걸로 옥석혼효(玉石混淆)를 피하기 어렵다. 간송의 타고난 미감(美感)에 오세창(吳世昌, 1864-1953)과 고희동(高羲東, 1886-1965) 등의 안목에 힘입었기에 일당백(一當百) 명품이니 질적으로 국립박물관을 능가한다. 화가별로 기준이나 대표작 범주인 걸작(傑作) 위주로 체계적으로 수집되었다.

간송미술관 기획전에 출품작을 통해서도 소장품의 규모와 위상을 짐작하게 된다. 조선회화의 경우 5백년 조선왕조 전체를 아우르니 조선 3대화가나 사인(士人三齋) 등 화가별, 시대별, 유파별, 장르별로 우리 옛 그림의 어엿함과 위상에 걸맞은 것들이다. 그림의 뒀뒀

즉 기량과 격조를 지닌 것들로 우리나라 회화사 연구에 있어 기준으로 대표성과 시금석의 의미를 지닌다. 자체 소장품만 가지고 감상과 더불어 학술적 의의가 큰 전시를 개최했다. 이 점은 전술했듯 최고의 안목에 의한 엄격한 감식(鑑識)과 고증을 거쳐 소장된 것들이기에 가능하다. 이들 서화 소장품이 지니는 의미를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첫째, 철저한 검증을 거친 수집품들로 엄선해서 모은 점과 조형예술 모든 분야를 아울렀고 서화(書畫)와 전적(典籍)을 함께 수집함은 주목된다. 문헌사료와 유형문화재는 상호보완의 의미를 지닌다. 서양과 달리 동양의 한자문화권의 글씨와 그림은 시작이 같은 뿌리에서 자란 두 가지[同根二枝]이기 떼어 낼 수 없는 관계이다. 문학과 역사와 철학[文·史·哲] 전반을 바탕으로 사·서·화 일치를 기저로 한 전통문화의 바른 이해는 이로서 가능하다.

둘째, 그림은 초기부터 말기까지 조선왕조 전체와 20세기 근대화단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친 화가들 모두를 체계적으로 망라한 점을 들게 된다. 이에 시대별, 장르별, 유파별 기획전을 열 수 있었다. 특히 유적이 드문 조선 초기와 중기 그림, 18세기 최고의 서화수장가인 김광국(金光國, 1727-1797)이 조선 초부터 후기까지 모아 화첩을 만든 『석농화원(石農畵苑)』과 서울대 박물관에 소장된 동명의 것과 달리 오세창이 앞서 첩으로 꾸민 간송미술관 소장 『근역화휘(槿域畵彙)』는 의발전수(衣鉢傳受)의 상징성을 지닌다.

셋째, 회화사적 의의가 큰 거장(巨匠)들의 명품에 초점을 두어 작가별 걸작 100점을 목표로 모았다. 이에 동처에서 전혀 외부 도움 없이도 훌륭한 기획전이 가능하다. 진경산수를 이룩한 ‘조선의 화성(畵聖)’ 정선, 남종문인화의 국풍화를 이룩한 심사정, ‘조선의 화선(畵仙)’ 김홍도, 18, 19세기 각기 ‘예원의 총수(總帥)’로 학문과 예술 양면에 족적이 큰 강세황과 김정희, 조선 말기 화단을 최후로 화려하게 장식한 장승업, 김수철·민영익·홍세섭 풍속화의 쌍벽으로 사·농·공·상 사회 각계각층인데 비해 도심의 한량과 기녀의 애정에 초점을 둔 내용과 주제에서 구별을 보이는 김홍도와 신윤복, 동갑내기 친구사이이나 화풍에서 구별을 보인 김홍도와 이인문, 장승업의 제자로 근대화단의 시발인 안중식과 조석진 등 2-3인 공동전시도 가능했다.

넷째, 소장품은 개별 화가들의 기준이자 대표작들인 점을 들게 된다. 한 점 만이 아닌 화첩(畵帖)과 병풍 들 일괄(一括)을, 간지가 있어 화풍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제작연대를 알려주는 작품들이 적지 않다. 조선 초 문인화가 유자미나 고운의 학(鶴)과 호랑이, 17세기 초 이항복과 조우인, 김방두 등의 그림은 이곳 소장품이 지금까지 알려진 유일한 그림들이기도 하다. 방작이 많은 장승업의 경우도 일종의 특채로 시험을 거치지 않고 화원이 되어 일정 기간 궁에서 그림을 그린 것으로 전해진다. 화면 내 묵서[待令畵員 臣張承業 進上]로 이 무렵 제작된 일련의 도석인물화나, 신화에 잠긴 생애에 걸맞게 그의 몰년이 가려져 있었다. <삼인문년도(三人間年圖)>에는 제자 안중식이 1914년에 쓴 제발로 장승업이 1897년 타계함이 분명히 밝혀지게 된다.

조선 말기 화단에서 새로운 감각으로 지금은 모두에게 잘 알려진 새로운 감각의 화풍으로 주목되는 김수철의 <송계한담>과 <자황양국(紫黃兩菊)> 등이 포함된 『산수화첩』도 간송의 수집품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8폭으로 된 <사계영모도> 병풍은 홍세섭 전칭작에서 간송 소장품에 관서가 분명한 <진금상축(珍禽相逐)>에 의해 전칭을 떼게 되었다.

다섯, 우리 그림만이 아닌 중국 등도 함께 모은 점을 들게 된다. 이들 간송의 회화는 국내 최고의 수준을 지닌 것들로 중국과 구별되는 조선 회화의 독자성(獨自性)과 어엿한 위상(位相)을 확연히 드러낸 명품들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조선의 화성(畫聖), 정선(鄭敼, 1676-1759)

- 진경산수 외 각 장르에 걸친 걸작들

간송미술관이 첫 번째 기획전은 '겸재 정선 회화'(1971.10)이다. 이어 제45회 '겸재 진경산수화'(1993.10)와 제66회 '대겸재'(2004.5) 등 3차, 조선 후기 일정시대를 진경시대(眞景時代)란 역사용어로 제21회 '진경산수화'(1981.10), 제25회 '진경시대 시서화'(1985.10), 제49회 '진경시대인물화전'(1995.10), 제50회 '개관 25주년기념 진경시대'(1996.5), 제54회 '삼재'(1998.5) 등 모두 정선과 연관된 전시였다.

그러나 정선이 진경산수만 그린 것은 아니니, <소상팔경도> 같은 정형산수와 <기려심매(騎驢尋梅)><무송관산(撫松觀山)><여산초당도(廬山草堂圖)>(보물 제1953호) 등 고사·도석인물화(故事·道釋人物畫), 겸재가 52세부터 타계할 때까지 살던 집인 <인곡유거(仁谷幽居)>와 1741년 『경교명승첩(京郊名勝帖)』(보물 제1950호) 내 속한 자화상(自畫像)격인 <독서여가(讀書餘暇)> 등 풍속 및 기록화, 화조, 1742년경 그린 일괄 8점 화훼초충을 비롯해 영모, 어해 등 다양한 장르를 함께 수집했다.

우리 산천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따사로운 시선과 자부심, 긍지로 전개한 진경산수는 전국 도처에 발길이 달았다. 이들을 화면에 옮겼는데 특히 한양과 한강 주변, 금강산 등 명소들을 즐겨 그렸다. 63세(1738년) 『관동명승첩(關東名勝帖)』, 64세(1739년) 김상용(金尙容, 1561-1637) 고택인 대작 <청풍계(淸風溪)>(보물 제1952호), 남산 아래 펼쳐진 수도 한양의 낮과 밤을 담은 <장안연우(長安煙雨)>와 <장안연월(長安煙月)>, 59세(1734년) 그린 호암미술관의 <금강전도(金剛全圖)>(국보 제217호)와 병칭되는 66세(1741년) 비단에 그린 <풍악내산총람(楓岳內山總覽)>(보물 제1951호), 친일파 송병준(宋秉駿, 1858-1925)의 고택에서 불쏘시개 되기 직전 용케도 화를 면한 72세(1747년) 『해악전신첩(海嶽傳神帖)』(보물 제1949호), 79세(1754년) <장동팔경(壯洞八景)> 화첩 등을 들게 된다.

간송미술관 기획전시와 한국민족미술연구소의 그간 학문적 성과는 결코 과소평가 될 수 없다. 18세기에 대한 집중적인 조명은 일제 제국주의 식민주의사관(植民主義史觀)에 의해 중국의 아류(亞流)로 변화와 발전에 둔감 및 정체성(停滯性) 일변도로 호도(糊塗)된 우리 역사의 제자리 찾는 일과, 미술사 측면에서 문화의 명징성 구명(究明)에의 역할이 사뭇 돋보인다. 이 모두 간송의 혜안(慧眼)이 빛은 결과이다.

* 참고문헌

『겸재 명품첩』 2책(지식산업사, 1981.5)

최완수, 『겸재 정선 진경산수화』(범어사, 1993.7)

최완수, 『겸재 정선』 3책(현암사, 2009.10)

최완수 외, 『우리 문화의 황금기』 2책(현암사, 1998.3)

강관식 외, 『찬란한 우리 문화의 꽃 진경문화』(현암사, 2014.10)

최완수, 「간송선생평전」, 『간송문화』 41호(한국민족미술연구소, 1991.10), pp.61-122.

이원복, 「간송 전형필과 그의 수집 문화재 -미술의 꽃, 조선회화를 중심으로- 선생평전」, 『간송문화』 75호(2008.10), pp.113-124.